

제 25 장 에게 연안 전도를 끝마침

1. 갈리오 판결 이후: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리오의 판결은 기독교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였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상당 기간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 강좌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갈리오 앞에 체소되어 아직 미결로 있었을 때인지, 아니면 고린도에 그가 머무는 동안 다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인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것의 성취를 위해 한 의식이 요구되는 서원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후 에게해를 횡단하여 에베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머물다가 체류하라는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 한 후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동료들에게 안부를 물은 후 다시 북쪽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육로로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앞서 1, 2차 전도여행 시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한 후 에베소 도착하여 3년을 보내면서 그 도시의 강력한 복음화와 아시아 지방의 복음화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동쪽 국경에 이르는 주요 통로 중 하나에 위치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행정수도였으나 자체의 원로원과 시 의회도 가진 자유 헬라 도시로서 순회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2. 고린도 교회 문제 대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2년 후인,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바울 자신의 증거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추론해 보면, 고린도교회는 유별나게 은사를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은 황홀한 말의 은사로써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절적 언어(발음이 명확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몇몇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 안에서 잘 알려진 현상이었으며, 바울 자신은 특별히 방언에 탁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다 더 귀중히 여긴 영적 은사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은 일상적인 언어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 고린도교회 내의 파벌

아블로파: 아블로는 애굽계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이므로써,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지 얼마 안 되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에베소를 방문한 그는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바울의 친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더 깊은 지식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증거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유대인 적수들을 논박하여 어떤 열성과 고린도 교인들은 아블로를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당파: '나는 케바에게 속한 자라'(고전1:12)고 하면서, 베드로의 권위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몸소 고린도를 방문하여 바울이 떠난 후 그곳에서 가르쳤는지의 여부는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당파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그의 성도들 중에서 약화시키려고 했을 뿐 아니라, 음식과 같은 물질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고린도 교회의 말썽꾸러기 단체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방종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로써 바우어(F.C. Baur)는 이들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들은 일루미나티를 포함하는 파벌이며,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유 그리고 불멸'과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3. 에베소 선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철저한 선교활동으로 수세기 동안 아시아 교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923년 그리스-오스만터키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교체될 때까지 존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열 두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 한 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첫 장면이 시작 됩니다(행19:1-7). 두 번째 장면에서 바울은 3개월간 설교하고 강론한 후 회당에서 추방당한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이나 설교와 강론을 하게 됩니다(행19:9). 세 번째 장면에서는 바울이 마술사들과 충돌(행19:13)하였으며 많은 마술사들이 복음의 능력이 더 우세함을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가담하게 됩니다(행19:18). 네 번째 장면은 가장 유명한 화면인 커다란 야외 극장에서의 소동입니다(행19:23).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에 복음이 크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여신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여신 숭배로 은 신상을 만들어 팔아 치부하던 은장색들의 조합이 자신들의 수입원이 쇠하여 감을 알고 그들의 책임자 데메드리오의 사주를 받아 복음전파를 반대하는 시위대회를 열게 됩니다. 바울의 두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폭도들에게 끌려 연극장으로 들어갔으나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였고, 로마의 집정관들이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준엄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간신히 그들을 설득하여 해산 시켰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후에 마게도냐에서 쓴 고린도후서 1:8-11에서 그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환난에 대하여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를 썼다고 보는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건짐받을 것과 빌립보에 있는 그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 1:19, 26).

4.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문제 : 디모데의 고린도 방문을 통해서 전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당파심이 최근 들어 격렬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 유대인 교사들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이스라엘이 이방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강조했으며,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교인들이 받아들였고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린도를 몸소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위협 수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물러나서 신랄한 편지를 작성(고후10-13장)하여,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교회가 범죄자들을 준엄하게 징계하는 치리를 행하여 교회를 바로 잡을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태도 변화를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면서 바울의 권면에 완전 호응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마음 편한 확신과 기쁨에 넘치는 음조로 편지 작성을 (고후1-9장) 하게 됩니다.

5. 에게해 연안의 전도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일루리곤(아드리아 동해안, 마게도냐 극서지방의 로마 영토, 헬라 문화권에서 라틴 문화권에 속한 지역)까지 방문 했으며, 동부 지중해 지역에 전도 중, 서쪽으로 시각을 돌려, 스페인을 복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로마의 영토요, 서부 지중해에서 문화의 요새지였던 스페인으로 향하기 전에 로마 방문 계획을 세웠으나, 살해 음모로 계획을 변경하여 유대를 방문하게 됩니다.